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9. 30.(금) 11:30	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규성 (044-203-5320)
		담당자	서기관 박은표 (044-203-5121)

에너지 저소비-고효율 산업·경제 구조로 대전환

-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% 절감 목표로 「에너지 다이어트 10」 추진 -
-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-
- 요금의 가격기능을 정상화하여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 유도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9.30일(금)**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**「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」**을 상정, 논의하였다.

□ 이창양 장관은 **모두 발언**을 통해,

○ 현재 전 세계는 **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**에 직면하여, 주요 제조 강국조차 **큰 폭의 무역적자**와 함께 **마이너스 성장**을 겪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**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,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** 등 **다각적 대책을 강구**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이러한 위기는 **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**하고 있으며,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**막대한 무역수지 적자**가 발생하고 있고,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**연료비 리스크에 취약**해진 가운데 그간의 **요금인상 억제**와 **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**으로 **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**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○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**상당기간 지속될 우려**가 있어, 이제는 **경제·산업 전반을 저소비-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**라고 강조하는 한편,

-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**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**이기도 한 만큼, **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**하였다.

○ 또한, 이 장관은 **수요 효율화를 유도**하고,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**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**고 강조하였다.

- 이에, **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**과 함께 **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**하고, **대용량 사용자**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**추가적인 조정**을 하되, 특히 **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금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된 **안건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

○ **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% 절감을 목표**로 **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**을 전개하고, 문화로 정착되도록, 정부·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**'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'** 을 시행하고,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**'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'** 도 운영한다.

○ 아울러,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**'에너지 캐쉬백'** 을 확대 시행, **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**을 체결하고, 지자체와 함께 **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**도 추진할 예정이다.

❷ 효율혁신 투자 강화

○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**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 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**하고,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**자금 지원**, **효율 핵심기술개발**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❸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

○ **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**하여 **가격기능이 작동**하도록 하고,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,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,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**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**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